

기획특집

제주 관광안내정보의 선진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2천만 시대대비와 세계적인 관광명소 조성을 위하여 -

(사)한국관광정보센터 소장 허 갑 중

1. 제주 관광안내정보를 세계적인 관광명소 하와이와 비교하면 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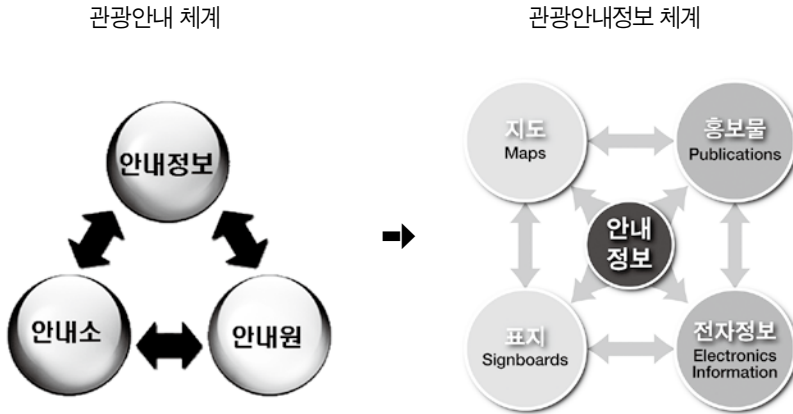
2103년 말, 제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이 1천만 명이 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참으로 놀라운 성과다. 그런데 제주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세계자연유산 등을 포함한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라고 홍보해왔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와 유사한 환경과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이미 널리 알려진 미국 하와이의 관광안내정보 수준과 비교하면 어떤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주는 하와이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함량 미달이다.

비록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훌륭한 환경과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1천만 시대를 넘어 2천만 시대를 대비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려면 국제관광마케팅은 필수이고, 국제관광마케팅의 필수·핵심수단인 관광안내정보의 선진화 없이는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성공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한 국제화, 세계화 사회에서 수준이 저급하거나 엉터리 관광안내정보로 세계적인 관광명소에 대한 국제관광마케팅을 위한 판촉·홍보활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 2천만 시대대비와 외래 관광객유치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래 관광객 2천만의 성공적 유치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의 조성을 위해서 관광안내정보인 지도, 표지, 홍보물(가이드북), 전자정보(웹사이트)의 선진화는 불가피하지만 우선 1차로 관광안내지도와 표지 2가지로 한정하여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선진화 목표제시와 기본방향 및 달성방안을 차례로 기술할 것이다.

2. 관광안내 체계와 관광안내정보 체계 그리고 관광안내 정책의 변화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관광안내 체계는 1) 안내원, 2) 안내소, 3) 안내정보 요소의 구성·연계를 말하고, 관광안내정보 체계는 1) 지도, 2) 표지, 3) 홍보물(가이드북), 4) 전자정보(웹사이트) 요소의 구성과 통합적인 연계를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선진국들은 관광안내 정책을 과거 안내소 중심 체계에서 안내정보 중심 체계로 전환했다. 선진국들이 이처럼 관광안내 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첫째, 행태변화로 관광객이 과거에는 관광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직접 관광안내소를 찾아가야 했으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매체환경 변화로 휴대용 개인 컴퓨터, 모바일 전화 등 통신매체의 발달로 관광안내소를 찾아가갈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관광수용태세 변화로 신용카드 결제와 예약 시스템의 발달로 환전과 예약 및 결제의 불편이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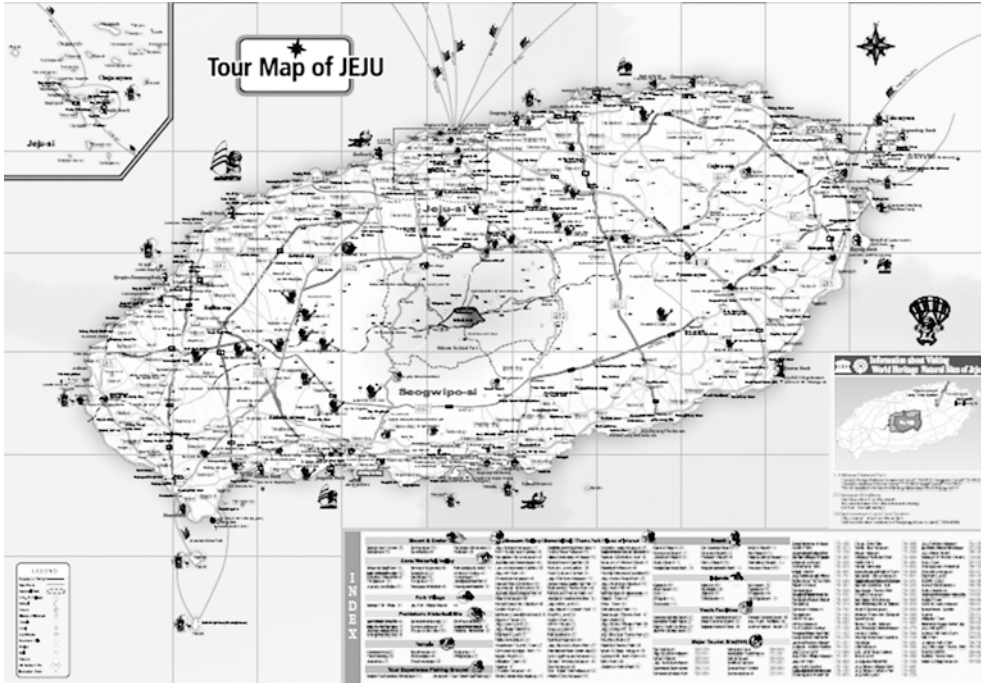
또한 선진국들은 관광안내소 중심에서 관광안내정보 중심으로 안내서비스 정책을 전환했다. 저급하고 부족한 관광안내정보를 국제기준에 부합·통용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예술적 수준으로까지 향상시켜 충분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여 관광객들이 불편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관광안내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Any Time, Any Where)’ 취득·이용할 수 있게 관광안내정보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특히, 관광안내정보는 통신기술발달과 이용자인 관광객의 수요 및 국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안내정보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문안 (Verbal) 정보 중심에서 시각 (Visual) 정보 중심, 고정식 매체 중심에서 휴대용 이동식 매체 중심, 단순화 중심에서 다양화 중심, 개별매체 중심에서 [해외 선진 통합적 표준화 사례 1]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적 매체 중심으로 등 엄청난 변화를 했다 (참조: 대한지리학회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개한 허갑중의 2013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지도 및 표지 PPT 자료 전문).

3. 제주 관광안내지도와 표지 실태 및 문제점, 표지 관리주체 문제점 및 선진국 경향

3.1 제주의 관광안내지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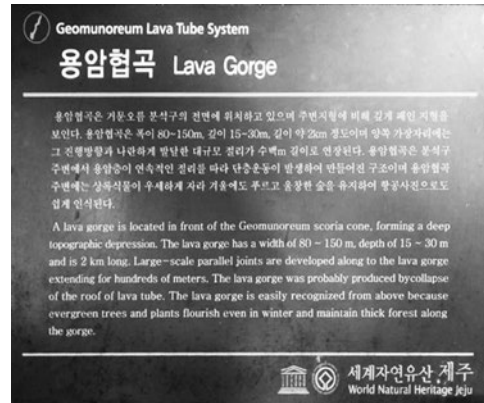
아래 제시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가 기획·제작한 관광안내지도는 핵심·필수 요소인 개념정의, 제작 기본원칙, 기반지도 채택, 표준 지도요소 적용 등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관광안내지도는 주제지도의 일종인 관계로 관광명소를 주제로 한 관광안내지도를 기획·제작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반지도에 단일 주제인 관광명소만을 표기해야 했다. 그런데 아래 사례에 알 수 있듯이 주제를 표기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무관의 대소 주제를 함께 다량 표기하여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도 없는 이른바 ‘एं티리 잡탕 지도’를 만들어 버렸고, 제주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표출한 예술적 수준의 관광안내지도 기획·제작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3.2 제주의 관광안내표지 실태와 문제점, 관리주체 문제점 및 선진국 경향

제주의 경우, 관광·방문안내표지 설치를 위해서 여러 관련 부처의 지침을 준수하거나 참고하여 제주도의 입장에서 설치해왔으나 아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마디로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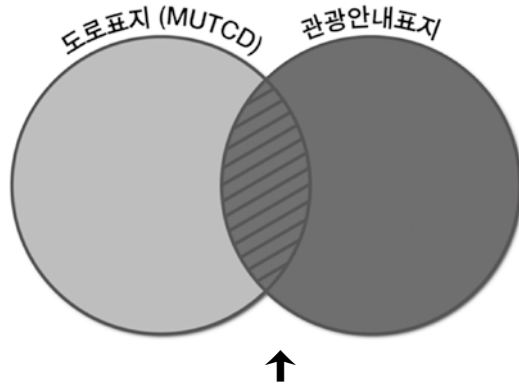


즉, 1) 문화체육관광부의 보행자 관광객 중심 관광안내표지, 2) 문화재청의 보행자 관광객 중심 문화재 안내표지판, 3) 국토교통부의 운전자 중심 도로표지 등, 4) 안전행정부의 운전자 및 보행자 겸용 방문안내표지 등, 5) 해양수산부의 보행자 관광객 중심 해수욕장 및 해양레포츠시설 안내표지, 6) 환경부의 보행자 방문객 중심 국립공원안내표지 등을 획일적으로 준수 또는 참고해야 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1) 기준난립·부적합한 신·구 표지가 공존하게 되어 부조화를 야기한 문제, 2) 여러 계획수립자들이 제 각각 제시한 주관적 기준들을 반영·수립한 지침에 따라 제 각각 달리 제작·설치한 표지가 같은 공간에 혼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 3) 국내의 관광객의 증가로 표지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소관부처 간 협력부재의 높은 장벽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안내표지의 경우,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운전자 관광객 중심의 안내표지와 보행자 관광객 중심의 안내표지가 잘 연계되도록 제작·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환경부 등
운전자 관광객 표지	운전자 관광객 겸 보행자 관광객 표지	보행자 관광객 표지
보드 타입 (Board Types)	보드 타입 (Board Types)	패널 타입 (Panel Types) 중심



※ 연계 부분 안내표지: 1) 관광명소, 2) 관광시설, 3) 관광안내소, 4) 편의서비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도로표지 주무부처에서 연계부분의 표지를 설치·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 선진사례로 호주의 경우는 1)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운전자들의 관광안내표지에 대한 수요증대를 충족하고, 2) 지역 관광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관광객 안내표지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안내 및 편의서비스안내 표지를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사실은 필자가 호주 MUTCD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를 조사·분석한 자료에서 관광안내표지 및 편의서비스안내 표지의 종류가 1994년에 29개였던 것이 2004년에는 무려 100개로 10년 사이에 약 3.5배로 대폭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에 국내외 관광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 관광객도 함께 대폭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도로표지규정집을 분석해보면 전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는 자가용과 렌터카 운전자 관광객이 대폭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국내 및 제주 관광안내표지와 지도의 선진화를 어렵게 한 근본적인 이유

관광안내정보인 지도, 표지, 가이드북, 웹사이트는 관광분야에 대한 특수 대중매체(Mass Media)이다. 그런데 관광안내지도는 제작소재에 따라서 종이, 모니터, 표지판, 게시 패널 지도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종이와 패널지도는 관광안내표지의 핵심

콘텐츠의 하나인 관계로 항상 함께 하나의 세트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관광안내표지와 지도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관련 3주체인 이론·연구부문의 학계, 제작·설치부문의 업계, 시행·지원부문의 정부 3주체가 각각 제몫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호주 등과 같은 구미 선진국들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던 관광안내표지와 노변표지 게시 지도문제를 해결해보려고 고심하던 중에 Romedi Passini가 1984년 Wayfinding in Architecture를 출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이론을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노정탐색 이론을 디자인에 접목하여 실용화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무려 8년이나 지난 199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천재 디자이너인 Paul Arthur가 Wayfinding: People, Signs and Architecture를 출판하게 되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회 SEG(D (Society for Experiential Graphic Design)가 선진화를 위한 홍보, 학회 부설연구원과 국내의 워크숍 및 대학 등에서의 전문교육, 실증연구, 컨설팅, 자료제공 등을 주도하게 되면서 구미 선진국들이 함께 선진화를 이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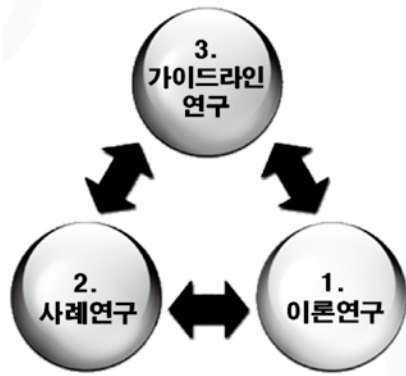
[해외 선진 통합적 국제표준화 사례] 중이 지도를 가이드북, 표지, 웹사이트에 게재



그런데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1) 관련 선행 및 노정탐색 관련 이론연구, 2)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 3) 국내외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이드라인과 실행 계획 보고서 사례연구, 가이드라인 수립과 통합적 국제표준화 측면의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경험을 함께 갖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큰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선진국들이 관광안내표지와 지도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 및 인력을 투입해서 연구·수립하였고, 관련한 노하우가 담겨있는 관계로 표지부문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와 지도부문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업체 모두가 지적재산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선진화를 어렵게 한 근본적인 큰 이유 중 하나다. 역시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이처럼 어려운 관련분야를 대학에서 전공하고, 오랜 기간 연구경험을 쌓아서 전문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국내에서는 업체들이 영세하여 취업할 곳이 없고, 전문가 인력수요가 없어서 인력양성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된 것이다.

[도표]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관광안내표지와 지도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필수연구

관련 필수연구 부문 및 부문별 관련 필수연구 과목



1. 이론 (Theories) 연구: 일부과목 실습 포함

1.1 관련 선행 이론연구: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중매체 (Mass Media): 신문, 잡지; 간판; 방송; 인터넷 등; 디자인 (Design): 그래픽 디자인; 편집 디자인 등; 칼라; 용어 표준표기; 글꼴; 국·영문 표기 스타일; 그림표지; 소비자행동; 조사방법; 마케팅; 인체공학; 시각적 인지; 광고; 관광; 인쇄물 (신문, 잡지 등) 및 영상물 제작; 사진; 정보 시각화 (Information Visualization) 등

1.2 노정탐색 관련 이론연구:

표지와 지도관련 노정탐색 이론 및 디자인 (Wayfinding Theory & Design); 노정탐색 행동 (Wayfinding Behavior); 주제지도 이론과 디자인 (Thematic Maps Theory & Design); 도로표지 (Road Signs); 방문·관광 안내표지 (Visitor·Tourist Signs); 안내정보관련 국제 트렌드 (International Trend); 안내표지 및 지도관련 소재 (Materials), 제작 (Production), 설치 (Installation), DB구축, 관리 (Management); 통합적·국제표준화 이론 등

2. 사례 (Cases) 연구: 국내 및 해외 선진국;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

2.1 관광·방문안내지도 사례 연구: 주제별

2.2 관광·방문안내표지 사례 연구: 보행자와 운전자 중심별, 제작 타입별, 형태별 등

3. 가이드라인 (Guidelines) 연구: 국내와 해외 선진국;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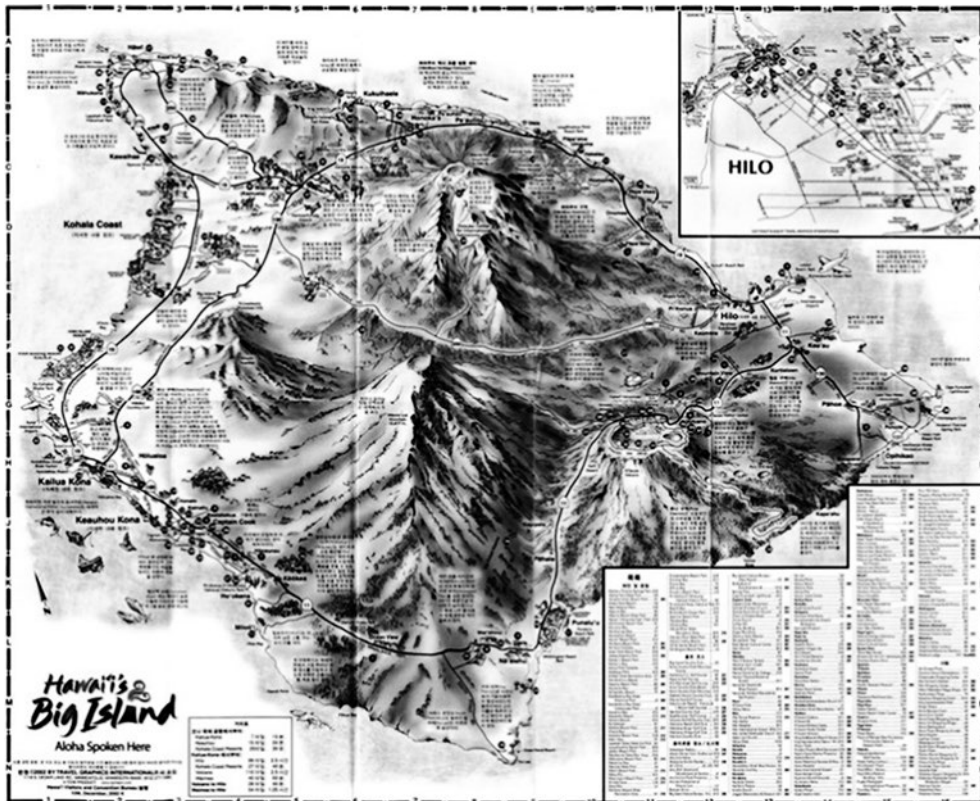
3.1 관광·방문안내지도 가이드라인 관련연구

- 가이드라인 사례 조사·분석
- 가이드라인 수립

3.2 관광·방문안내표지 및 도로표지 가이드라인 관련연구

- 가이드라인 사례 조사·분석
- 가이드라인 수립

[해외 선진 관광안내지도 사례] 미국 하와이 Big Island 및 Chicago, 호주 시드니 올림픽 파크





미국 Chicago



호주 Sydney 올림픽 파크: 연계·확장 사례 스타일



운전자 관광객 중심의 도로변 관광안내표지



보행자 관광객의 중심 관광지 내·외부 관광안내표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일반, 시각,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브랜드디자인과 관광경영, 여가, 개발 등을 전공한 사람들까지도 해당분야의 전문가라고 관광안내표지와 지도 가이드라인 수립과 조사연구 책임자, 자문위원으로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관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부끄러운 결과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진성 때문에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혈세를 써가며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했다.

이러한 사실은 필자가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관광안내표지와 지도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발표한 지도와 표지관련 두 학회에서 발표한 전문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의사의 경우에 일반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최소한 6년 동안 기본 이론과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의가 되려면 다시 해당 전문분야에서 일정한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전문의사가 될 수 있으며, 유능한 전문의가 되려면 다시 오랜 시간 현장경험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그래야 돌팔이 의사가 아닌 전문의로서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치·처방할 수 있어야 완치시킬 수 있다. 관광안내표지와 지도의 경우도 관련 선행 및 관련 이론연구, 국내외 사례연구, 국내외 국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이드라인과 계획사례와 수립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어야 가능한데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바라고 연구를 맡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국가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5. 제주 관광안내지도와 표지 선진화 목표제시, 기본방향, 목표달성 방안

5.1 제주 관광안내지도 및 표지 선진화 목표제시

제주 관광안내지도와 표지의 선진화 목표는 아래 제시한 핵심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해외 선진 통합적 국제표준화 사례], [해외 선진 관광안내지도 사례], [해외 선진 관광안내표지 사례]의 연계 시스템, 항목구성, 콘텐츠의 질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과 선진국처럼 지도는 10년, 표지는 15년, 가이드라인 겸 실행계획은 30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5.2 제주 관광안내지도와 표지 선진화 기본방향

5.21 관광안내지도 선진화 기본방향: 핵심요건 7개 항 충족 (선진국 사례 참조)

- ① 국제적으로 검증된 개념정의에 부합한 관광안내지도
 “흥미 있는 곳과 경관을 경험하고자 방문하기를 원하는 관광객에게 중점 또는 의도사안과 유관한 오직 하나의 주안점에 대한 공간적인 분포나 위치를 알려 주기 위하여 평면, 혼합, 입체 형태로 고안된 단일주제의 지리적 지도이며, 기반지도에 주제와 관련된 오버레이 및 부수적인 지도요소들을 적용하여 분명하고 매력 있으며 읽기 쉽게 제작한 지도”
- ② 기획·제작 기본원칙을 준수한 관광안내지도
 “간단, 명료하고, 읽기 쉽게 (Simple, Clear, Easy to Read)” 라는 기본원칙을 준수
- ③ 정확성을 확보한 관광안내지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일명 백지도 (White Map)라고 불리고 있는 기반지도 (Base Map)를 반드시 채택·적용
- ④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명확한 근거기준을 제시·적용한 관광안내지도
- 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
 선진국에서 국제적으로 검증된 근거기준 및 표준 지도요소를 적용
- ⑥ 정체성이 표출된 관광안내지도
- ⑦ 예술적 수준의 관광안내지도

※ 참고: 허갑중, 한국 관광안내지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광 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09)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2013지리학대회 지도학 및 GIS 발표자료·2013.06.22·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동), 대한지리학회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재·공개한 학술 발표 전문 PPT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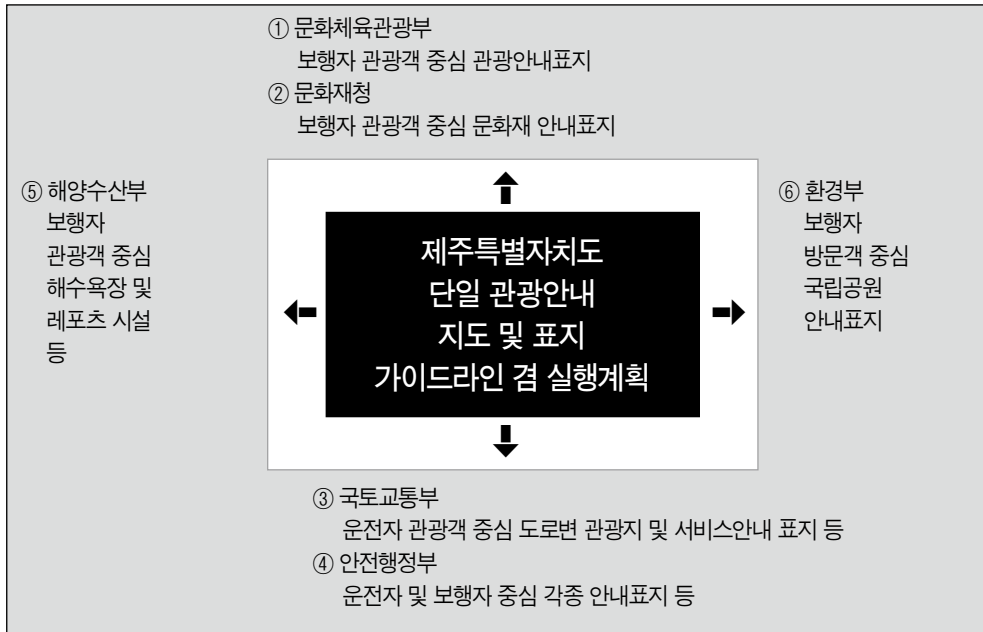
5.22 관광안내표지 선진화 기본방향: 핵심요건 10개 항 충족 (선진국 사례 참조)

- ① 관광 약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광안내표지 이용자 표준을 약자계층: 1) 휠체어 이용 장애인, 2) 시력 약자, 3) 성인여성으로 설정
- ② 국제적으로 검증 완료된 Wayfinding Design에 근거한 관광안내표지
- ③ 국제 트렌드 - 타입, 형태, 규격, 소재, 색상 등의 다양화를 수용한 관광안내표지
- ④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명확한 근거기준을 제시·적용한 관광안내표지
- ⑤ 통합적·국제 표준화에 기초한 관광안내표지
- ⑥ 선진 관광안내지도도를 게시한 관광안내표지: 종이와 패널 2가지 소재 제작방식

- ⑦ 정체성을 표출한 관광안내표지
- ⑧ 표준화 설계·조립 시스템에 따라 제작·설치한 관광안내표지
- ⑨ 예술적 수준의 관광안내표지
- ⑩ GPS를 연계·관리하는 관광안내표지

※ 참고: 허갑중, 한국 관광·방문안내표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09)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디자인학회·2013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2013.09.27·중앙대학교), 대한지리학회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재·공개한 학술발표 전문 PPT 자료

5.3 제주 관광안내지도와 표지 선진화 제시목표 달성방안



구미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안내표지는 2단계 즉, 1단계: 광역지자체 단위 가이드라인 수립, 2단계: 광역지자체 단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이드라인 겸 실행

구미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안내표지는 2단계 즉, 1단계: 광역지자체 단위 가이드라인 수립, 2단계: 광역지자체 단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이드라인 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 등처럼 규모가 작은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국가단위 단일 가이드라인 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2원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고속도로 표지

의 경우는 연방정부 교통부에서 국가단위 MUTCD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 정부 단위 가이드라인 겸 실행계획을 수립·적용하는 2단계 시스템을 채택·시행하고 있으며, 관광안내표지의 경우는 연방정부 내무부 국립공원청 (NPS: National Park Service)에서 방문안내 겸용의 단일 국가단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할지역청별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2단계 시스템을 채택·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의 정체성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선진 관광·방문안내지도와 표지를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4단계과정에 따라 통합적 국제표준화 측면에서 단일 가이드라인 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 1단계: 준비단계로 전문가 상세발표와 토의, 과업추진관련 제주 관계자들 참석 논의
- 2단계: 정확한 제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수립
- 3단계: 수립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단일 제주 가이드라인 겸 실행계획 수립
제주도, 제작업체 등의 관계자들 모두가 시행과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참고, 시행과업 감수, 평가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방문안내지도와 표지의 제작·설치를 위해서 그래픽 부문을 제외한 구체적인 단일 가이드라인에 상세 실시설계도를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 4단계: 소요예산 확보 및 과업시행

6. 맺는 말: 요약 및 제언

제주도가 1천만 시대를 넘어 2천만 시대대비와 미국 하와이(Hawaii) 수준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1) 관광안내 체계와 관광안내정보 체계 그리고 관광안내 정책의 변화, 2) 제주의 관광안내지도와 표지 실태 및 문제점, 표지 관리주체 문제점 및 선진국 경향, 3) 관광안내표지와 지도의 선진화를 어렵게 한 근본적인 이유, 4) 제주 관광안내지도와 표지 선진화 목표제시, 기본방향, 목표달성 방안과 관련해서 기술했다.

관련한 제반 기반여건이 매우 취약한 우리와는 달리 탄탄한 선진국들은 이미 1992년부터 관광안내표지와 지도 선진화를 위하여 이론적 실제적 측면에서 학계, 업계, 정부가 함께 검증완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을 보편화했다. 그래서 필자가 지난해 12월 초, 중요성과 시급성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방문안내 겸용의 ‘국가단위 단일 관광안내지도 및 표지 가이드라인 수립’을 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까지 청원해둔 관계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도가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시행한다면, 1) 국제관광마케팅 효과는 클 것이고, 2) 소요예산은 장기적으로 절반수준까지 절감될 것이며, 3) 질적 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될 것이고, 4) 관련분야 수용태세는 선진화될 것이며, 5) 파급효과도 대단히 클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3대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는 위상과 품격을 고려하고,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한 한국 관광진흥 50년 역사 중 최근 20년 동안의 관련분야 역사를 교훈삼아서 2천만 시대를 대비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려면 선진국처럼 관광객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검증된 근거기준들을 바탕으로 해당분야 각각에 대한 핵심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방문안내 겸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단일 관광안내지도 및 표지 가이드라인 겸 실행계획’을 서둘러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관광객이 ‘읽을 수 있고, 읽고 싶은 (To Read, Want to Read)’ 선진국 수준의 관광안내지도와 표지를 기획·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단일 가이드라인 겸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